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진승



인류는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여 년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온도는 최대 6.5도, 해수면은 59m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의 약 2배, 제주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급속한 기온의 상승은 집중호우와 태풍을 유발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 합의 가능한가?

전 세계는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류가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래 석탄과 석유의 과다소비를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일차적인 책임이 자신들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1997년 일본 교토 총회는 국가별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

스를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경제여건,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자연적인 여건 등이 상이한 전 세계 180여 개 국가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합의 도출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과제인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 인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회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교토의정서협약을 대체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스트 교토체계에 대한 구

속력 있는 합의 도출과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개발도상국들의 동참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회의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의 유명 언론들은 칸쿤회의를 실패한 회의로 규정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2012년의 기후변화 총회를 유지하려는 우리나라는 최근의 실패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국가별 이기주의

에 기인한다. 즉,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당분간 온실가스의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1990년대 말과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각국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것을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관련 협의는 정부 간 협의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의 대표들은 정부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각국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이해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단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인류의 공존을 위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공무원들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그룹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에는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남아프리카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APEC 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총생산 만년 '바닥권' 탈출구 없나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9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는 1.4%포인트가 증가해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전남은 3.7%포인트 감소해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는 지역내총생산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인당 개인소득도 광주가 8위, 전남은 꼴찌를 기록하며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경제의 처참한 성적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 꼴찌'라는 소리를 듣기조차 지겨울 정도다. 언제까지 체면조는 나후 타령만 하고 있을 건지 답답하다.

지역경제의 낙후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타지역에 비해 뒤쳐지는 현실은 이

런 외부적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게 하고 있다. 광주는 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력에서 앞섰던 대전에 추월당하고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은 도세가 훨씬 약한 충남과 전북의 성장잠재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낙후 원인을 지역차별 정책에서만 찾을 일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지역내부에서부터 광주·전남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광주·전남은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화려하고 거창한 구호나 이것 저것을 골라낸 백화점식의 공허한 접근이 아닌 우리 지역만의 특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유치만 하더라도 타시도를 흉내 내는 단일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의 탓만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한 '낙후 타령'은 내내내도,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비틀거리는 연말' 지금이 그럴 때인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선박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새삼 '술'로 얼룩지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1일 현재까지 50여일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554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15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7명에 비해 무려 42.8%나 증가했다. 연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어김없이 술판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선박 운항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말이 시작되는 지난 17일(금) 밤 2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를 전 연수시 돌산읍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1명이 숨진 사고도 음주운항이 부른 비극이다. 선원 김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고속

으로 항해하다 충돌 사고를 낸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회 악'이다. 운전자 물론 동승자와 다른 차량에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자신의 가정과 남의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낡은 관대함에 비추면 측면이 크다. '술마시고 운전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다.

無 等 鼓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는 사회 고위층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초기 로마제국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숭신수법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다. 당시 로마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모범적인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이 행해졌고, 이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로마는 하지만 황제 통치 이후 권력이 사유화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허물어지면서 급속히 쇠망의 길로 들어선다. 예전의 우리 지도층도 할 일은 하고 살았다.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고, 나눔에도 온 힘을 쏟았다. 정승 열 명을 배출한 삼한갑족(三韓甲族) 우당 이회영 일가를 보자.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이들 60명의 대가족은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구레 운조루나 경주 최부자집처럼 굶주리는 이웃 주민을 챙긴 크고 작은 부자들도 많았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knews@

의로 칼럼

강택원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몇 번 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별다른 불편이 없는 분이다. 소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중에는 너무 자주 봐서 고��스러운 사람들이 많지만 소변을 잘 못 봐서 문제인 이들도 있다.

경북 영천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다. 몇 주의 훈련 중 귀중한 외박이 주어지자 우리들은 광주까지 버스를 대절하기로 하고 그리운 고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며 마냥 꿈에 부풀고 있었다. 마침내 그날은 왔고, 오전에 각계전투 훈련을 마치고 뜨거운 땀방울을 닦으며

사람이 갑자기 특정 성분 또는 이노제를 복용하거나 맥주, 막걸리와 같은 양이 많은 음료를 급히 많이 섭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뇨기 질환 중 응급환자의 고통은 매우 심하며 할말이 급속히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요도손상 후 요도협착이 된 젊은 환자가 요폐가 생겨 응급실에 와서 안절부절 못해 응급실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특히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생명이 위독하게 될 수도 있다. 만성으로 요폐

기 고

이난경

광주에 터를 잡은 지도 15년이 되었다. 처음 광주에 왔던 날이 기억난다. 15년 전 생전 처음 광주를 방문했던 날의 설레었던 순간 말이다. 광주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둘러본 광주의 첫인상은 좋았다. 넓고 교통체증 없는 도로, 오래된 가로수와 웅장하지만 부드러운 무등산, 여유롭고 한가한 듯 보이는 광주의 풍경은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러나 광주에 살게 되면서 부딪히는 현실은 보이는 것과는 달랐다. 5·18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했다.

'인본디자인도시' 광주를 기다리며

그러던 광주가 지난 15년 동안 긴 잠에서 깨어나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도 항상 차 있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남 처출러 요실금을 보일 수 있고 염증이 나 결석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배뇨장애 환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당뇨 등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비뇨기과 의사의 일이 많아지고 있다. 배뇨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근본적인 생리현상이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건강과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뇨 문제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병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늦지 않게 발견하여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뇨기과 의사가 되어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군복을 입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던 그때 생각이 나고 빨리 해결해드리고자 마음이 급해진다.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오줌 못 누는 고통

올라탄 버스의 뒷좌석에는 총무 후보생의 각별한 배려가 분명한, 시원한 맥주 몇 박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 본 알코올이기도 하지만 모든 규제가 속박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향하는 들뜬 마음에 순식간에 몇 개의 강통을 비워버리고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곧 고생길이 시작되었다. 영천을 벗어나 88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 급박한 의의를 느끼고 휴게소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고, 기사님에게 부탁해도 보았지만 갖길도 부실한 88 고속도로에서 세워주지 않은 시는 것이었다.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은 그때 실감해 보았다. 마침내 지리산 휴게소까지 와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지만 옷에 실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막상 소변기 앞에서는 10여 분이 지나도록 소변을 볼 수 없었다. 그럴 때문인지 그 후부터는 지금도 장거리 버스를 탈 때나 극장에 가기 전에는 화장실부터 먼저 가는 습관이 생겼다.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 있으나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요폐(尿閉: urinary retention)라고 한다. 전립선비대증이나 당뇨로 인한 신경손상, 요도손상 후 요도협착, 골반 수술 후 합병증이 원인이며 기존에 유발 원인이 있는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존 미달 안전삼각대 시중 유통 많아 철저 점검을

운전자들에게 안전삼각대는 무척 중요한 안전장비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삼각대가 대부분 기존 미달이라는 보도를 접한 뒤 제조업자들의 부도덕성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보도에 나온 삼각대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삼각대의 안전기준은 초속 18m 세기의 바람이 불 경우 75mm 이상 밀려나가거나 옆으로 뒤틀리거나 해도 불발검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10개 중 6개 제품이 아예 쓰러져 버렸다. 현재 시판 중인 삼각대 제품 상당수가 영터리제품이라는 것이다.

삼각대가 빛을 어느 정도 반사시키는지 측정하는 암실 테스트에서도 10개 중 8개 제품이 기준 미달이었다. 교통당국은 현재 시판중인 모든 안전삼각대의 성능과 제품 적합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전량 수거하고, 신제품의 품질검검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주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